화순군, 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TF 구성·대책 마련한다

구충곤 군수, 장애인 사망·학대사건 유감 표명
화순지역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자립 욕구 등
전수 조사 및 장애인 중심 자립·탈시설 지원계획

화순군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학대 사건과 관련 가칭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순군과 장애인 단체는 6월 10일 화순군청사에서 열린 면담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TF 구성,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TF는 화순 지역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욕구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장애인 중심의 자립과 탈시설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2곳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학대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충곤 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두고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올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장애인 단체가)더 감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수사·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

화순군은 입소 장애인이 숨진 A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있었던 B거주시설에 대해 경찰 수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6월5일 있었던 사망 사건이 학대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A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와 합동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행정처분,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경찰,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화순군, 전남도가 학대 등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군은 전남도와 협의해 A시설 입소자들을 최대한 빨리 분리조치(전원)하고, 입소자 대비 종사자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개선명령)할 예정이다.

B시설에 대해서는 1차 행정처분(개선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혐의가 인정돼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B시설의 과거 학대사건과 관련 처분 사전 통지, 시설의 의견 제출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마치고 '학대 사례'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검토 중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장애인들과 가족,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엄중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장애인 단체와 TF를 잘 운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합사례회의 개최

고위험 대상자 영역별 지원방안 마련위해 열려

무안군은 지난 6월 22일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무안병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 중 의료, 주거, 복지 등 복합적 문제와 욕구가 있는 사례를 선정해 영역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상자가 지닌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해 각 기관별로 지원 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공유했다.

무안경찰서는 신원 파악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대상자 주거지 인근을 순찰을 실시하고 자·타해 위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내용, 의료보장 유형 변경 등 복지혜택 기준과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읍 복지기동대, 지사협과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도배·장판 교체 작업 실시

장흥읍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도배·장판 교체가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주택 내·외부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자들은 도배·장판 교체를 위해 실내 가구와 물품을 직접 옮기고, 오래된 거실과 주방의 장판을 걷어내 벽지를 뜯은 후 새 장판과 벽지를 붙이고 주변을 청소하여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권모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여러 어려움이 있고, 도배·장판을 교체할 돈이 없어 엄두를 못 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 도배·장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 줘서 새집이 된 것 같다"며 "오늘부터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장용 장흥읍장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쁜 시간을 내어 이렇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기동대원 분들과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 사업 지속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